

연구 자료

호주의 쇠고기 생산과 수출 동향

정민국*

Key words: 쇠고기 산업(Beef industry), 비육장(Feed lots), 목초급여쇠고기(grass fed beef), 곡물급여쇠고기(grain fed beef)

ABSTRACT

Korea and Australia play important roles in the international beef market, particularly in the Pacific Rim beef trade. Australia was Korea's second largest import market after United States. After the discovery of BSE in the United States, the Australia beef industry is likely to have an opportunity to increase market share in Korean beef market. This paper is intended to assist in the understanding of Australian beef markets and of the industry's various component.

- | | |
|---------------|-------------------|
| 1. 연구의 필요성 | 4. 쇠고기 산업의 농가 수익성 |
| 2. 쇠고기 수급 현황 | 5. 쇠고기 수출 패턴 |
| 3. 쇠고기 생산 시스템 | 6. 분석결과의 함의 |

1. 연구의 필요성

호주의 쇠고기 산업은 호주 농촌경제에 서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호주 육용우(beef cattle) 산업은 농업생산액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시장에서 가장 큰 쇠고기

수출국이며 한국 수입쇠고기 시장에서 보면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호주 쇠고기 생산량은 미국, 브라질, 중국과 비교하면 적은 규모이지만 호주는 쇠고기 생산량의 6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고 있어 국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2002년 호주는 지육중량 기준으로 140만 톤의 쇠고기를 수출하였으며, 이는

* 연구위원.

국제시장에서 거래된 쇠고기량의 22%에 해당된다.

호주산 쇠고기가 한국으로 수입된 지 이미 상당 시간이 지났고, 생우 또한 2001년 처음 수입되고 난 이후 계속 수입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호주의 생우를 비롯하여 쇠고기 생산 및 수출에 대한 정보 수집이나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3년 캐나다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함에 따라 북미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되었으며, 2004년 북미산 쇠고기 수입중단 이후 실질적으로 쇠고기 수입이 가능한 지역은 호주와 뉴질랜드 정도이다. 향후 국내 쇠고기 수급의 중장기적 추세와 변화 방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호주 쇠고기산업의 생산 동향과 수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호주의 쇠고기 생산, 소비 그리고 수출에 관한 현지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호주 쇠고기 산업의 중장기적 추세와 변화과정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쇠고기 수급 현황

쇠고기 생산량은 도축두수와 지육중량에 따라 결정된다. 도축두수는 기후조건과 외국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다. 1990년 상반기 퀸스랜드(Queensland)주를 중심으로 형성된 건조한 기후는 90년대 중반까지 육용우 사육두수의 증가를 크게 제약하였다. 그러나 1995-96년 기후 조건이 호전됨에 따라 사육두수 확충이 재개

되었고, 도축두수도 다소 감소하였다.

1997-98년 퀸스랜드주의 생우 수출이 감소하고, 호주 남부의 건조한 기후, 도축우에 대한 높은 가격 형성으로 도축두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도축률은 암소에 있어 특히 높았다. 암소 두수가 감소함에 따라 1998-99년 송아지 생산두수가 감소하였으며, 도축두수 또한 약간 감소하였다. 지육중량은 1991년 208kg에서 2002년 231kg으로 11% 증가하였다<표 1>.

호주의 1인당 육류소비량은 지난 40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지육중량 기준으로 약 100kg을 유지하여 왔다. 2003년 육류소비량에서 쇠고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3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닭고기 등 가금육이 32%, 돼지고기 21%, 양고기 12% 순이다.

호주 소비자들은 연한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국내 쇠고기 소비는 어린 소의 고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인당 육류소비량은 1991년 106kg에서 2003년 109kg으로 연간 0.2%씩 증가하였으나 동기간에 쇠고기 소비량은 39kg에서 38kg으로 연간 0.2%씩 감소하였으며, 양고기는 23kg에서 13kg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닭고기 등 가금육은 동기간에 25kg에서 35kg으로 연간 3%씩 크게 증가하였으며 돼지고기도 19kg에서 22kg으로 연간 1%씩 증가하였다.

쇠고기 소비량의 장기추세를 보면 1인당 소비량은 1960년 39kg에서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1977년 69kg으로 최고치에 달한 후 계속 감소하여 왔다.

지난 12년 동안(1991-2003)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1997년 41kg에 달한 이후 계속

감소하였으나 쇠고기 총 소비량은 인구증가로 인해 67만 5천 톤에서 75만 4천 톤으로 12% 가까이 증가하였다. 호주 인구는 이민자들의 증가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최근 이민자 유입에 대해 심사를 엄격히 하고 있어 향후 인구수 증가에 따른 쇠고기 수요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1인당 소비는 정체 상태에 있어 국내 수요는 한계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

출은 호주의 산지가격과 환율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쇠고기 생산량에서 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50%에서 1980년 58%, 1990년 61%, 2001년 68%, 2002년 65%로 높아졌다<표 2>. 호주의 쇠고기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내 소비량은 정체되어 있어 호주의 쇠고기 산업의 수출

표 1. 소 도축두수 및 지육중량(1991-2003)

	도축두수(A), 천두	지육중량(B), kg	생산(C=A*B), 톤
1991	8427	208	1749
1992	8731	210	1834
1993	8343	217	1814
1994	8366	221	1845
1995	7906	217	1719
1996	7968	218	1734
1997	9148	212	1939
1998	9308	213	1987
1999	8756	227	1991
2000	8734	232	2025
2001	8749	237	2072
2002	9053	231	2090
2003	8906	224	1998

자료: ABARE 2004. 12, Australian Commodity Statistics 2004

표 2. 호주 쇠고기 수급 현황(1991-2003)

	생산(A, 천톤)	수출(B, 천톤)	소비(C, 천톤)	1인당소비량, kg	B/A, %
1991	1749	1080	675	39.1	0.62
1992	1834	1191	645	36.9	0.65
1993	1814	1169	645	36.5	0.64
1994	1845	1164	692	38.8	0.63
1995	1719	1106	622	34.5	0.64
1996	1734	1028	711	38.9	0.59
1997	1939	1189	754	40.7	0.61
1998	1987	1278	711	38.0	0.64
1999	1991	1272	721	38.1	0.64
2000	2025	1329	679	36.4	0.66
2001	2072	1407	667	34.2	0.68
2002	2090	1362	730	37.1	0.65
2003	1998	1246	754	38.2	0.62

자료: ABARE 2004. 12, Australian Commodity Statistics 2004

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3. 쇠고기 생산 시스템

3.1. 지역특성에 의한 분류

호주의 육용우(beef cattle) 사육두수는 1976년 2980만두를 정점으로 1984년 1940만두까지 감소하였다. 육용우 사육두수는 1985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2년 2470만두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2년 시작된 가뭄 영향으로 2003년 사육두수는 2002년보다 5% 감소하였다. 2003년 호주의 농가당 평균 사육규모는 330두이다.

2002/03년(회계연도 기준) 호주는 1982/83년 이후 가장 심각하고 광범위한 가뭄에 직면하였다. 가뭄은 농가로 하여금 소 출하를 유도하고 소의 폐사율을 증가시켰다. 특히, 퀸스랜드(Queensland), 웨스턴오스트랄리아(Western Australia), 뉴사우스웨일즈

(New South Wales) 농가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강수량 때문에 가뭄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2003년 퀸스랜드 주 육용우 사육두수는 2002년보다 7%가까이 감소하였으며, 웨스턴오스트랄리아는 8% 감소하였다<표 3>.

호주의 육용우 생산의 특징 중 하나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생산방법이다. 호주에서 육용우(beef cattle) 생산은 농가의 가장 일반적인 경영활동이다. 육용우를 사육하는 농가는 서부의 건조지역을 제외한 호주 전역에 분포되어 있다. 호주의 쇠고기 생산은 전문화된 쇠고기 산업을 비롯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복합농업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호주의 농업은 밀과 기타 곡물산업(wheat and other crop industry), 혼합축산곡물산업(mixed livestock-crop industry), 양산업(sheep industry), 쇠고기산업(beef industry), 양-쇠고기 산업(sheep-beef industry) 등으로 다섯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호주의 쇠고기(beef) 및 송아지고기(veal)

표 3. 지역별 육용우 사육두수 현황(1994-2003)

	NSW	VIC	QLD	SA	WA	NT	호주 전체
1994	6,127	2,604	9,656	1,056	1,683	1,434	23,080
1995	5,867	2,659	9,689	1,064	1,773	1,419	22,991
1996	6,019	2,714	9,928	1,069	1,803	1,502	23,569
1997	6,118	2,627	10,130	1,024	1,787	1,609	23,736
1998	5,922	2,306	10,562	1,051	1,848	1,566	23,776
1999	5,846	2,180	10,444	1,006	1,817	1,567	23,358
2000	5,531	2,317	11,503	995	2,059	1,570	24,448
2001	5,786	2,435	11,088	1,050	2,001	1,707	24,504
2002	5,593	2,463	11,284	1,201	1,980	1,777	24,739
2003	5,419	2,491	10,507	1,209	1,815	1,683	23,615

주: NSW는 New South Wales, VIC는 Victoria, QLD는 Queensland, SA는 South Australia, WA는 South Australia, NT는 Northern Territory임.

자료: ABARE 2004. 12, Australian Commodity Statistics 2004

생산은 크게 두 가지 지역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연중 건기와 우기로 구분되는 호주 북부 목초지역이며, 다른 하나는 호주 남부의 강우량이 많은 '밀 재배-양 사육 지역'이다. 육용우 생산은 남부의 강우량이 많은 지역에서 보다 집약적으로 이루어지며, 두 당 초지면적이 다른 지역보다 넓은 호주 북부지역에서 조방적으로 이루어진다. 육용우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퀸스랜드 주이다. 호주 육용우 사육두수의 45%가 북부 지역의 퀸스랜드 주에서 사육되고 있으며, 22%가 남부 지역의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 사육되고 있다<표 3>.

북부 목초지역의 육용우는 밀도가 낮은 상태에서 토착 목초를 먹으며 대규모로 광범위하게 사육된다. 북부지역은 소를 방목하는 것이 유일한 활동이다. 이 지역의 품종은 열대성 기후에 적합한 브라만(Brahman)과 산타 게르트루디스(Santa Gertrudis)이다. 농가당 사육두수도 2003년 6월 기준으로 퀸스랜드 주는 1,390두이며, 북부특별지구(Northern Territory)는 5,800두이다. 북부지역의 호당 사육규모는 호주의 다른 지역보다 일반적으로 크다.

남부지역의 육용우는 개량된 목초를 먹으며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사육된다. 남부지역도 개량된 목초재배로 목초이용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육두수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농가들의 규모가 일반적으로 작기 때문에 사육규모도 작으며, 따라서 도축용 소 출하두수도 북부 지역보다 작다. 이 지역의 주요한 소 품종은 앵거스(Angus), 헤어포드(Hereford), 그

리고 머레이 그레이(Murray Grey)이다.

호주 북부지역의 전문쇠고기생산농가(specialist beef properties)는 가공용 쇠고기 시장을 위한 도축용 소(slaughter cattle)를 생산하고, 호주 남부시장을 위한 비축용 소(store cattle)를 생산하며, 그리고 비육장 산업을 위해 비육용 소(feeder cattle)를 생산한다. 그리고 이들 중 많은 농가들이 생우 수출을 위해 소를 출하한다. 호주 남부지역의 농가들은 일반적으로 내수시장과 한국과 일본에 쇠고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축용 젊은 소를 판매한다. 남부지역 농가들 역시 비육장을 위한 비육우를 생산하며, 육용우 생산농가와 낙농가들은 노폐한 암소를 이용하여 가공용 쇠고기 시장을 위한 쇠고기를 생산한다.

3.2. 시장수요에 의한 분류

호주 육용우 생산의 특징 중 다른 하나는 다양한 수요에 부응한 생산 차별화이다. 호주 쇠고기 산업은 내수시장과 수출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쇠고기 생산 체계를 개발하여 왔다. 쇠고기 생산자들은 내수시장용 쇠고기와 수출용 쇠고기를 구분하여 생산하고 있다. 생산자들은 내수시장을 위해 젊은 소를 출하하며, 비육장 산업을 위해 비육용 소를 판매하며, 그리고 가공용 쇠고기시장을 위해 나이 든 암소를 출하한다. 이처럼 다양한 수요에 부응한 쇠고기 생산은 크게 목초급여 쇠고기 생산(grass fed beef production)과 곡물급여 쇠고기 생산(grain fed beef production)으로 분류할 수 있다.

3.2.1. 목초급여 쇠고기 생산

호주는 광활한 초지공급이 가능하고 초지사용 비용이 저렴하여 목초급여 쇠고기 생산에 있어 국제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쇠고기 생산은 토착 목초와 개량 또는 파종된 목초에 기초하고 있으며, 파종된 목초는 대개 많은 비료 투입을 필요로 하는 도입 식물종을 사용하고 있다. 육용우 사육에 있어 목초에 편향된 급여를 보충하기 위하여 사료와 곡물을 포함하는 다른 영양소가 함께 이용된다.

호주에서 사용되는 목초급여 쇠고기 생산을 위한 비육체계는 4가지로 분류된다. 처음 두 가지 생산체계는 도축용 소를 출하하기 위해 비육하는 것이다. 많은 생산자들이 다음 생산체계의 두 가지 또는 그 이상 생산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첫째는 도축용으로 송아지를 생산하여 비육하는 방식이다. 비육용 송아지는 6~12개월령에 도축된다. 비육용 송아지가 도축될 때 생체중은 170~340kg이며, 도체중은 90~180kg이다. 이러한 송아지 고기(veal)는 주로 내수시장의 외식용으로 생산된다.

둘째는 도축용으로 소를 생산하여 비육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생산 체계에서는 12개월령 이상의 수소가 생산되어 도축용으로 판매된다. 이들 소는 월령을 기준으로 12~16개월령(yearlings), 16~36개월령(steers), 36개월령 이상(bulls)으로 분류되며, 소의 생체중은 12~16개월령이 300~400kg이고, 16~36개월령이 400~540kg이다. 이 생산 체계는 소 월령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생

체중과 도체중도 다양하다.

셋째는 비육용으로 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 생산체계에서는 특정 농가에서 생산된 소가 도축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비육을 필요로 하는 비육장(feedlots) 등으로 판매된다. 이러한 생산 방식은 농가에서 도축용으로 소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비육장 등에 공급하기 위하여 비육용 소를 생산된다는 측면에서 위의 두 가지 생산 방식과는 차별된다. 이 방식으로 거래되는 소의 월령은 12~24개월이다.

넷째는 비육용으로 소를 구입하여 비육하는 방식이다. 이 생산체계는 위에서 언급된 비육용 소를 구입하여 비육하는 것을 포함하며, 농가에서 소가 사육되는 처음 두 가지 비육 방식보다는 자연환경과 시장 변화에 탄력적이다. 구입한 소의 곡물급여 비육기간은 대부분 12개월 이내이다.

3.2.2. 곡물급여 쇠고기 생산

호주의 쇠고기 생산방식은 목초를 급여하여 생산하는 것이 지배적이지만, 특정한 시장을 위한 마무리의 수단으로서 비육장(feedlots)의 사용이 1980년대 중반부터 적극적으로 개발되었다. 비육장 쇠고기 생산은 곡물재배 지역과 인접한 호주 북부와 남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비육장은 주로 일본시장을 목표로 한 지방교잡도(marbling)가 높은 쇠고기와 내수 시장에 적합한 단기 곡물급여 쇠고기를 공급하고 있다. 2003년 6월 현재 일본시장용 곡물급여 소 사육두수는 43.2%, 한국시장용 2%, 기타 수출용 3.3%로 총 수출용 곡

표 4. 목표 시장별 곡물급여 소 사육두수(2003년 6월 기준)

목표시장	두 수(두)	비 율(%)
일 본	288,283	43.2
한 국	13,314	2.0
기타수출	21,859	3.3
내 수	335,300	50.2
기 타	8,839	1.3
총 계	667,595	100.0

자료: Meat and Livestock Australia(MLA) /Australian Lot Feeders Association(ALFA)

물급여 소사육두수 비중은 48.5%이다. 내수시장용 곡물급여 쇠고기 생산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곡물급여 소 사육두수의 50%가 내수시장용이다<표 4>.

내수 및 수출시장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230~360kg의 중소가 필요하다. 내수 외식 시장과 한국시장을 위하여 소에게 곡물을 급여하는 기간은 중소 구입 후 70~120일이 보통 소요되며, 이들 시장을 위해서는 대부분 품종이 이용되며, 특히 교잡종의 수송아지(steers)와 3세미만의 암소(heifers)가 일반적으로 이용된다.

일본시장을 위한 소 곡물 급여기간은 중소 구입 후 200일 이상이며, 품종은 중소단계 이후부터 성숙도가 뛰어난 영국계(British types)이다. 앵거스(Angus), 머레이 그레이(Murray Grey), 그리고 헤어포드(Hereford) 품종이 곡물급여 비육시장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으며, 몇몇 유럽계 교잡종도 성공적인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200일 이상 장기 곡물급여를 필요로 하는 일본시장을 위한 밀소는 생체중이 360~500kg이고 골격과 근육이 발달한 16~22개월령의 수송아지이다. 대부분 비육장은 지방교잡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영국계 품종, 특히 앵거스, 머레이 그레이, 헤어포

드를 선호한다.

곡물급여 쇠고기를 생산하고 있는 비육장은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하나는 상업비육장(commercial feedlots)이며, 다른 하나는 농민비육장(farmer feedlots)이다. 상업비육장은 한 번에 1,000두 이상의 소를 수용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연중 내내 소에 대한 곡물급여와 도축을 위한 소를 출하한다. 반면 농민비육장은 간헐적으로 이용되는 기회비육장(opportunity feedlots)이며, 소 수용능력이 200~300두로 매우 작다. 상업비육장은 매우 자본화되어 있으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운영 효율성에 의존하는 반면, 농민비육장은 시장 및 자연환경에 매우 탄력적이며, 소 값 및 곡물가격이 낮거나 가뭄시기에 이용될 수 있다.

많은 상업비육장은 소 소유주들의 소 위탁비육(custom feeding) 장소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 경우 비육장 경영주는 소 소유권을 가지지 않지만 소 소유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다. 비육장의 소 위탁비육의 중요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위탁비육은 일찍 밀소를 확보하고 소 소유권을 장기보유하기를 원하거나 쇠고기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로부터 이익을 확보하기를 원하는 소 생산자, 가공업

자, 그리고 투자자에 의해 이용된다.

2003년 6월 현재 호주의 곡물급여 소 사육두수는 약 668 천두이며, 이중 거의 50%가 퀴스랜드주에서 사육되고 있다. 퀴스랜드는 비육장 곡물급여에 있어 호주에서 가장 큰 주이다. 2002~03년 가뭄이 발생하기 이전 호주의 비육장 산업은 양호한 사육조건과 풍부한 사료곡물 수확으로 양적 성장을 이루어 왔다.

도축량 기준으로 비육장산업의 시장점유율은 회계연도(7월에서 다음해 6월까지)를 기준으로 할 때 1990/91년 5%에서 2002/03년 23%로 상승하였다. 2002년 기준 호주 전체 도축물량은 약 9백만 두이며, 이중 비육장 산업이 약 1백 9십만 두의 소를 도축용으로 출하하여 시장점유율은 21.5%이다 <표 5>. 곡물급여 쇠고기에 대한 국내 수요

가 증가함에 따라 내수시장을 위한 곡물급여 소 사육두수는 계속 증가되고 있다.

2003년 6월 현재 호주 비육장은 703개이며, 900,000두의 소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비육장 소 수용능력의 주별 비중은 퀴스랜드주가 50%, 뉴사우스웨일즈주가 36%, 빅토리아주가 6%, 웨스턴오스트랄리아주가 5%, 그리고 사우스오스트랄리아주가 2%이다.

그러나 2003년 시장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비육장의 가동률은 2002년 6월 82%에서 2003년 6월 73%로 낮아졌다<표 6>. 비육장의 가동률이 낮아진 것은 가뭄으로 곡물가격이 높아졌고, 광우병 파동으로 일본시장의 수요가 크게 위축되었으며, 수출시장에서 호주 쇠고기의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호주달러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표 5. 비육장의 시장점유율(도축량 기준, 2000-2002)

	단위: 천두, %		
	2000	2001	2002
비육장(A)	1,905	2,048	1,949
호주전체(B)	8,734	8,749	9,053
A/B	21.8	23.4	21.5

자료: ALFA

표 6. 주별 규모별 비육장 수용능력 및 가동률(2002-2003)

		수용능력(A, 천두)		급여 두수(B, 천두)		가동률(B/A,%)	
		2002	2003	2002	2003	2002	2003
주 별	NSW	310	332	250	247	80.6	74.4
	QLD	439	458	387	344	88.2	75.1
	VIC	58	52	46	37	79.3	71.2
	SA	38	22	17	13	44.7	59.1
	WA	50	49	34	27	68.0	55.1
규 모 별	500두 미만	83	100	47	50	56.6	50.0
	500~1,000	100	92	81	70	81.0	76.1
	1,000~10,000	301	261	252	195	83.7	74.7
	10,000두 이상	410	460	354	352	86.3	76.5
	비육장 전체	895	912	735	668	82.1	73.2

주: 각 연도는 회계연도말인 6월 기준임.

자료: ALFA.

4. 쇠고기 산업의 농가 수익성

쇠고기 산업에 포함된 농가는 육용우 사육 농가이며, 많은 소규모 농가가 포함되어 있다. 2003년 육용우 사육농가는 71,300호 이다.

2002년 시작된 가뭄으로 인한 출하두수 증가로 2003년 육용우 사육두수는 2002년보다 4.5% 감소하였다. 가뭄으로 인한 폐사율은 과거와 비교하면 낮아졌다. 과거 가뭄 때에는 사육중인 육용우를 시장에 출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고, 가축을 이동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폐사율이 높았다.

가뭄으로 출하두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02/03년 총수입은 산지가격 하락과 비육이 종료되지 않은 소를 판매함에 따라 감소한 반면, 가뭄으로 목초 부족에 따른 보조사료에 대한 지출 증가로 총비용은 증가하여 농가 소득은 2001/02년에 비해 50%

이상 감소하였다.

2003/04년 육용우 출하는 농가가 다시 사육두수를 확충하기 시작함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출하두수 감소에 따라 산지가격은 높게 형성되고 기후조건이 호전됨에 따라 초지성장이 회복되어 사료비 지출의 감소가 예상되며 농가당 육용우 수입은 매우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3/04년 호주의 육용우 사육두수는 확충되었지만 지역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호주 육용우의 50% 이상이 사육되는 퀸스랜드주의 사육두수 확충은 2004년까지 이어진 가뭄으로 제한적 일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2003/04년 퀸스랜드 북서지역의 비육우 출하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2003/04년 농가당 평균 소득은 31,000불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1200두 이상을 사육하는 대규모 농가의 농가당 소득은 114,000불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표 7>.

표 7. 호주 쇠고기 산업의 농가당 수지분석(호당 평균)

		2001/02	2002/03	2003/04
현금수입(A)	A\$	256,670	216,800	201,000
현금비용(B)	A\$	176,600	182,100	170,000
현금소득(A-B)	A\$	80,080	34,700	31,000
- 300두 미만	A\$	9,870	9,600	2,000
- 300-1200두	A\$	51,030	23,500	43,000
- 1200두 이상	A\$	346,200	140,500	114,000
현금이윤	A\$	31,050	-42,100	-14,000
- 300두 미만	A\$	-31,620	-48,400	-37,000
- 300-1200두	A\$	10,080	-37,100	-500
- 1200두 이상	A\$	276,960	-30,500	46,000
수익률	%	2.2	-1.4	0.1
- 300두 미만	%	-3.5	-6.4	-4.7
- 300-1200두	%	1.0	-1.3	-0.5
- 1200두 이상	%	5.0	0.4	1.7
농외소득	A\$	27,230	30,400	na

자료: ABARE 2004, Australian Beef industry Productivity and Financial Performance, Australian Beef 04.1, Canberra

5. 쇠고기 수출 패턴

5.1. 호주 쇠고기의 주요 수출시장

호주는 일본과 미국 등 주요시장을 비롯하여 세계 100개국 이상에 쇠고기를 수출한다. 2003년 일본과 미국 시장이 호주 쇠고기 수출량의 76%를 차지하였으며, 한국은 호주의 쇠고기 수출에 있어 세 번째로 중요한 시장이며, 호주산 쇠고기 6만 2천 톤을 수입하였다.

미국은 호주의 주요 쇠고기 수출시장으로서 선적량에 있어서 2000년 이후 일본을 추월하였다. 2003년 미국은 호주의 쇠고기 수출량의 43%를 차지하였으며, 일본이 33%, 한국 7%, 대만 4%, 캐나다 3%, 동남아 4%, 기타 국가가 6%를 차지하였다.

호주의 쇠고기 수출량은 1990년대 중반부터 증가되기 시작하였으며, 2001년 호주는 94만 7천 톤의 쇠고기를 수출하여 최고 기록을 세웠다. 2002년 일본에서 광우병이 발생함에 따라 일본 국내의 쇠고기 수요가

크게 감소하여 호주의 쇠고기 수출량은 92만 톤으로 감소하였으며, 2003년 호주의 쇠고기 수출량은 2002년의 가뭄의 영향으로 다시 84만 1천 톤으로 감소하였다. 2002년 광범위한 가뭄이 있던 후 2003년 들어 기후 조건이 다소 호전되었고 농가들이 사육두수를 다시 증가시키려 함에 따라 수출용 쇠고기 물량이 줄어들었다.

최근 몇 년 동안 호주는 쇠고기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수출하여 왔다. 호주의 쇠고기 생산량 중 수출비중은 1996년 59%에서 1999년 64%, 2001년 68%까지 높아졌으나, 2003년 수출용 출하두수가 감소함에 따라 64%로 낮아졌다. 호주의 주요 수출시장의 동향은 다음과 같다.

5.1.1. 일본

2001년 9월 일본 홋소에서 처음으로 광우병이 발견되자 일본 국내 쇠고기 소비는 약 50% 가까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모든 도축우에 대하여 엄격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안전

표 8. 시장별 호주의 쇠고기 수출량, 1996-2003

단위: 천톤(선적 무게)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미 국	179.9	220.9	285.2	291.1	352.3	397.7	385.9	368.0
일 본	280.5	311.7	320.9	313.3	325.7	319.1	237.0	279.3
한 국	57.6	60.9	33.5	77.9	73.3	56.8	80.2	62.3
대 만	23.8	35.0	33.7	34.7	28.6	29.1	34.4	31.1
캐 나 다	28.7	35.0	38.6	43.3	41.5	50.9	82.9	29.0
인도네시아	16.6	24.3	1.7	11.6	13.1	9.6	14.6	13.0
말레이시아·싱가폴	11.7	12.7	11.0	10.6	9.4	8.8	11.3	10.2
필 리 핀	20.5	26.9	20.2	20.4	14.3	19.7	12.9	8.6
기 타	75.5	74.3	110.5	65.1	43.4	54.9	61.2	39.4
총 계	694.8	801.7	855.3	868.0	901.6	946.6	920.4	840.9

주: 기타는 유럽, 중동, 오세아니아 등에 수출한 물량임

자료: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Australia, Export statistics, Livestock Exports, Canberra

을 보장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결과, 쇠고기 수요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일본 국내 수요의 회복은 수입쇠고기에 대한 수요로 이어 졌다. 2003년 호주산 쇠고기의 일본 수출은 2002년 보다 18% 증가하였으나 광우병이 발생하기 이전인 2000년 보다 아직 14% 감소한 수준이다.

일본에서 수입물량의 증가는 2003년 8월부터 일본으로 하여금 수입쇠고기에 대해 세이프가드 관세(safeguard tariff)를 부과하도록 만들었다. 쇠고기 수입관세가 38.5%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용인 최고치인 50%로 상승하였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냉장쇠고기와 냉동쇠고기로 분리하여 적용될 수 있다.

세이프가드 관세가 발동하기 위해서는 회계연도(4월에서 다음해 3월) 내에 냉장쇠고기 또는 냉동 쇠고기 어느 한쪽의 누적 분기 수입량이 전년 동기보다 17% 이상 증가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것은 회계연도말까지 적용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 관세율은 냉장수입쇠고기에 대해 2003년 8월 1일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 적용되었으며, 냉동 수입쇠고기에 대해서는 종전 관세가 적용되었다. 과거 일본에서 쇠고기 세이프가드는 냉장쇠고기에 대해 두 번 발동하였다. 한번은 1995년 8월부터 1996년 3월까지이며, 다른 한번은 1996년 8월부터 1997년 3월까지이다.

5.1.2. 미국

미국은 거래규모에 있어 호주의 가장 큰 쇠고기 수출 시장이다. 호주에서 미국시장으로 수출되는 고기형태는 대부분 가공용

뼈 없는 냉동쇠고기이다. 일본시장의 수입 쇠고기 수요 감소로 인하여 2002년 미국은 호주 쇠고기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시장이 되었다. 2002년 호주는 물량 기준으로 38만 6천 톤, 금액기준으로 10억 6천만 달러어치의 쇠고기를 미국에 수출하였다.

2003년 미국으로 수출한 호주 쇠고기 물량은 36만 8천 톤으로 전년 대비 5% 감소하였다. 이는 호주가 가뭄으로부터 회복되면서 많은 농가들이 사육두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암소 출하를 억제하면서 수출용 쇠고기 공급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2003년 12월 미국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함에 따라 미국과의 무역에 있어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교란이 발생하고 있다. 세계 모든 시장이 일시적으로 미국 쇠고기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의 수출용 쇠고기가 내수용으로 전환됨에 따라 호주산 쇠고기에 대한 미국 수요는 감소하였다.

2003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이 우루과이가 구제역으로부터 자유로운 국가임을 선포함에 따라 미국은 우루과이의 뼈 없는 신선 쇠고기에 대해 시장을 다시 개방하였다. 우루과이의 미국 관세상당치(TRQ) 물량이 2만 톤이기 때문에 미국시장으로 우루과이 쇠고기의 재진입이 호주산 쇠고기의 미국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호주는 UR 농업협상에서 미국 관세상당치(TRQ)물량으로 37만 8천톤을 확보하였다. 미국 TRQ물량에 대해서는 4%의 관세가 적용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관세 20%가 적용된다.

2003년 5월 미·호주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었으나 호주산 쇠고기의 무역장벽을 그대로 유지하고, 쇠고기의 미국 시장 접근 역시 앞으로 18년 동안 단계적으로 시행기로 한 점을 미루어 볼 때 호주산 쇠고기의 미국 TRQ물량 증가는 매우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5.1.3. 한국

한국은 호주 쇠고기 수출에 있어 일본과 미국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시장이다. 한국으로 호주산 쇠고기 수출은 선적무게를 기준으로 1996년 5만 8천 톤에서 2002년 8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호주쇠고기의 한국수출에서 곡물급여 쇠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1996/97년 3%에서 2002/03년 13%로 증가하였다. 냉장 곡물급여 쇠고기 수출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으로 냉장 곡물급여 쇠고기 수출은 회계연도 2002/03년에 3900톤으로 전년 대비 97%증가하였다.

2003년 한국으로 쇠고기 수출은 전년대비 23%감소한 6만 2천 톤이었다. 호주 쇠고기 생산량 감소로 일본을 제외한 모든 시장에 대한 쇠고기 수출이 감소하였다. 일본시장의 수요증가로 생산은 일본시장과 호주 내수 시장으로 전환되었다.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그리고 브라질과 같은 남미의 쇠고기 생산자들이 일본과 한국 등 환태평양 쇠고기 시장에 수출을 하게 된다면 호주는 북아시아 시장에서 강한 경쟁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5.1.4. 캐나다 및 대만

호주 쇠고기의 캐나다 수출은 2002년 8만 3천톤에서 2003년 2만 9천 톤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2003년 5월 암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즉각적으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였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한 국가 중 미국은 쇠고기와 생우에 있어 캐나다의 가장 큰 고객이다. 생산된 많은 쇠고기가

표 9. 급여 형태별 호주 쇠고기의 한국 수출

단위: 톤(선적중량)

	1996/97	1997/98	1998/99	1999/00	2000/01	2001/02	2002/03
목초급여	53,612	41,319	70,706	63,328	51,658	63,609	70,776(11)
냉장	19	6	91	314	567	1,309	2,425(85)
냉동	53,594	41,313	70,615	63,014	51,091	62,300	68,350(10)
곡물급여(A)	1,900	2,271	2,277	5,538	5,079	7,532	10,795(43)
냉장	2	1	15	76	396	2,001	3,941(97)
냉동	1,898	2,270	2,263	5,462	4,683	5,531	6,854(24)
전체(B)	55,512	43,590	72,893	68,866	56,738	71,141	81,572(15)
냉장(C)	20	7	106	390	963	3,310	6,367(92)
냉동	55,492	43,583	72,877	68,477	55,774	67,831	72,204(11)
C/B	0.04	0.02	0.15	0.56	1.70	4.65	7.81
A/B	3.42	5.21	3.12	8.04	8.95	10.59	13.23

주: ()의 숫자는 2001/02년 대비 증가율을 나타냄.

표 10. 보관형태별 호주 쇠고기 수출의 구성요소, 2003

단위: 톤, %

	냉장 쇠고기		냉동 쇠고기	
	수출량	비중	수출량	비중
일본	148,698	71.4	130,619	20.6
미국	27,358	13.1	340,652	53.8
한국	6,465	3.1	55,824	8.8
캐나다	5,437	2.6	23,566	3.7
대만	1,151	0.6	29,680	4.7
총 수출	208,178	100.0	632,761	100.0

수출이 되지 않음에 따라 가격은 하락하고 캐나다는 호주와 같은 해외 공급자에게는 덜 매력적인 시장으로 되었다.

대만은 호주의 다섯 번째로 큰 쇠고기 수출시장이다. 2003년 대만은 호주쇠고기 수출량의 4%를 차지하였다. 호주 쇠고기의 대만 수출은 2002년 3만 4천 톤에서 2003년 3만 1천 톤으로 감소하였다. 2003년 4월 호주는 대만에서 쇠고기 소비 증가를 위한 소비촉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와 국제쇠고기동맹(international beef alliance)을 맺었다.

5.2. 호주 쇠고기 수출물량의 구성요소

2003년 호주 쇠고기 수출량 중 냉장육 비중은 25%이다. 일본은 호주 냉장쇠고기에 있어 가장 큰 시장이다. 2003년 일본은 호주 냉장쇠고기 수출물량의 71%인 14만 9천 톤을 수입하였다. 호주 쇠고기 수출량의 75%는 냉동쇠고기이다. 2003년 호주 냉동쇠고기 수출량의 54%를 미국이 수입하였으며, 일본은 21%를 수입하였다. 한국은 호주 냉동쇠고기 수출에 있어 세 번째로 큰 시장이며, 2003년 호주 냉동쇠고기 수출량의 9%를 수입하였다.

일본으로 수출되는 냉장쇠고기 중 35%

는 완전한 세트(full sets) 형태로 선적되며, 나머지 65%는 다양한 부분육(cuts) 형태로 선적된다. 일본으로 수출되는 냉동쇠고기는 트리밍(trimmings)과 전후사분도체(forequarter and hindquarter)가 주류를 이룬다.¹

미국으로 수출되는 호주 쇠고기 중 냉장 쇠고기 비중은 약 7%에 불과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증가추세에 있다. 미국시장으로 수출된 냉장쇠고기 중 가장 인기 있는 부위는 안심(tenderloin)으로 28%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우둔(상)(inside)이 24.9%, 채끝(striploin)이 6.9%, 갈비심(cube roll)이 5.7%, 설도(하)(knuckle)가 5%, 목살치살(flaps)이 5%를 차지한다. 미국 수출물량의 97%는 냉동쇠고기이며, 이 중 67%가 햄버거 및 파이 시장 등을 위한 제조용 쇠고기(manufacturing beef)이다.

호주에서 한국시장으로 수출된 냉장 쇠고기 중 인기 있는 부위는 안심(tenderloin)과 어깨살(chuck)이다. 이 두 부위는 한국시장으로 수출한 냉장 쇠고기 중 54%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갈비심(cube roll :

¹ 트리밍(trimmings)은 도체 또는 도체의 어느 일정부에서 주요 부분육을 제거 한 후 남아있는 것들로 정의되며, 머리고기 및 내장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꽃등심, 알등심으로도 불림)이 12.6%를 차지하며, 한국시장으로 수출한 호주산 쇠고기 중 냉장쇠고기 비중은 2001년 2%에서 2003년 10%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3년 한국으로 수출된 나머지 90%는 냉동 쇠고기이며, 한국 수출용 냉동쇠고기의 주

표 11. 일본시장으로 수출된 호주산 쇠고기의 부위별 구성요소, 2003

단위: 톤, %

냉장 쇠고기			냉동 쇠고기		
부위	수출량	비중	부위	수출량	비중
풀 세트(full sets)	52,700	35.4	트리밍(trimming)	48,716	37.3
견갑골살(blade)	12,923	8.7	전후사분체	30,362	23.2
어깨살(chuck)	14,589	9.8	어깨살과 견갑골살	14,458	11.1
채끝등심(striploin)	8,112	5.5	양지	20,097	15.4
우둔(하)(silverside)	7,018	4.7	기타	16,987	13.0
양지(brisket)	14,197	9.5			
우둔(상)(topside)	6,415	4.3			
설도(하)(thick flank)	4,916	3.3			
설도(상)(rump)	6,083	4.1			
기타	21,745	14.6			
합계	148,698	100.0	합계	130,620	100.0

표 12. 미국시장으로 수출된 호주산 쇠고기의 부위별 구성요소, 2003

단위: 톤, %

냉장 쇠고기			냉동 쇠고기		
부위	수출량	비중	부위	수출량	비중
안심(tenderloin)	7,578	27.7	제조용(manufacturings)	227,215	66.7
우둔(상)(inside)	6,812	24.9	우둔(상)(inside)	20,439	6.0
채끝등심(striploin)	1,888	6.9	사태(shin/shank)	19,417	5.7
갈비심(cube roll)	1,559	5.7	우둔(하)(outside)	10,220	3.0
설도(하)(knuckle)	1,368	5.0	설도(하)(knuckle)	6,813	2.0
살치살(flap)	1,368	5.0	기타	56,548	16.6
기타	6,785	24.8			
합계	27,358	299.9	합계	340,652	300

표 13. 한국시장으로 수출된 호주산 쇠고기의 부위별 구성요소, 2003

단위: 톤, %

냉장 쇠고기			냉동 쇠고기		
부위	수출량	비중	부위	수출량	비중
안심(tenderloin)	1,894	29.3	사분도체(bone-in-quarter)	9,992	17.9
어깨살(chuck)	1,571	24.3	트리밍(trimming)	9,658	17.3
갈비심(cube roll)	815	12.6	갈비(short ribs)	6,587	11.8
견갑골살(blade)	627	9.7	사태(shin/shank)	4,578	8.2
일본식풀세트	369	5.7	어깨등심(chuck roll)	3,573	6.4
채끝등심(striploin)	317	4.9	양지(brisket)	2,568	4.6
기타	873	13.5	견갑골살(blade)	2,400	4.3
			우둔심(eye round)	2,010	3.6
			뼈있는 목살(bone-in-neck)	1,619	2.9
			기타	12,840	23.0
합계	6,465	699.8	합계	55,824	700

요 부분육은 사분도체(bone-in quarters), 트리밍, 갈비, 사태, 어깨등심, 양지, 우둔심(홍두께살) 등이다.

5.3. 생우 수출

호주 쇠고기 산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다른 한 분야는 생우 수출이다. 호주의 생우 수출 규모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 생우 수출은 도축용과 번식용으로 구분된다. 2003년 호주는 76만 9천두의 생우를 수출하였으며, 이중 68만 4천두를 도축용으로 수출하였다. 이들 소는 호주의 17개 항구에서 22개 국으로 수출된다. 이들 중 대부분이 동남아(south east Asia)와 중동(Middle East)이다.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호주의 도축용 생우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이며, 총수출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호주 생우수출의 성장은 수입국의 경제 상황,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 환율, 해외 경

쟁, 정치, 시장접근 등 해마다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왔다(Shiell 2003). 1997년 시작된 아시아의 경제 침체는 1998년 호주의 생우 수출을 34% 하락시켰으며, 인도네시아에 대한 선적을 90% 하락시켰다. 유럽의 광우병 발생은 필리핀 소비자들의 쇠고기 수요에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2001년 필리핀으로의 호주 생우 수출은 전년 대비 56% 하락하였다.

다양한 무역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몇몇 시장의 지육고기 선호로 인한 생우 수요의 증가는 호주 생우 수출 무역의 토대를 굳히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향후 냉동되지 않은 신선육은 소비지시장에서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특히 호주는 축산물 공급 능력과 지리적 위치 때문에 아시아 시장의 소비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하기 좋은 위치에 있다(Shiell 2003). 2002년의 가뭄과 2003년의 호주달러의 평가절상은 호주의 생우 수출에 크게 영향을

표 14. 호주의 생우 수출, 1996-2003

단위: 천 두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도축용 소	724.1	910.5	597.0	833.7	887.0	797.9	951.1	683.7
아시아								
인도네시아	386.5	421.7	41.2	159.5	296.7	287.7	425.6	375.8
일본	14.9	19.4	17.0	12.4	14.4	17.4	14.0	21.0
말레이시아	44.0	57.5	42.7	65.2	56.5	77.5	90.9	86.4
필리핀	200.0	253.8	215.9	266.1	223.8	97.4	113.1	74.5
중 동								
이집트	52.2	37.5	119.6	240.5	207.6	203.2	143.9	7.6
이스라엘	1.0	0.0	8.7	8.7	15.8	32.6	47.8	43.2
요르단	4.3	2.5	18.1	37.6	40.7	13.2	4.4	23.1
리비아	10.0	105.3	120.7	23.1	0.0	0.0	0.0	0.0
사우디아라비아	0.0	1.1	0.0	0.0	0.0	20.8	54.3	15.7
번식용 소	17.0	35.2	24.1	10.6	9.0	24.6	16.8	84.9
총 생우	741.1	945.7	621.1	844.2	896.0	822.5	967.9	768.6

미쳤다. 호주 생우 수출량은 2002년 96만 8천 두에서 2003년 76만 9천 두로 25.9% 감소하였다.

전문 쇠고기 산업은 생우수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하여 호주 북부에서 발전되어 왔다. 9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동남아시아의 생우 수요 증가는 호주 북부에 있는 농가들의 번식경영체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4~5세의 거세된 황소(bullock)를 출하하던 전통적인 번식 비육체계는 번식우의 비율을 높이고 2~3세의 좀 더 젊은 소를 출하하는 기업형으로 바뀌었다.

호주 생우 수출은 아시아 비육장 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9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증가하였다. 호주 생우 수출 무역은 가장 큰 시장인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이집트, 필리핀, 말레시아 등 동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에 의해 좌우된다. 생우수출을 위한 다른 중요한 시장은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브루나이, 일본, 멕시코 등이다.

1998년 아시아 경제침체로 동남아시아에 대한 생우수출이 붕괴되었을 때,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은 호주의 중요한 생우 수출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이집트는 중동지역에서 호주의 가장 큰 시장이었으나 2003년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지난 5년 동안 부상한 시장은 이스라엘, 요르단, 팔레스타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등이다.

6. 분석 결과의 함의

호주의 쇠고기 산업은 다양한 국내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

하여 육용우 생산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생산자들은 호주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연도가 양호한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어린 소를 출하하고, 곡물을 급여하는 비육장 수요를 위하여 비육용 소를 출하하며, 일본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곡물급여를 바탕으로 300일까지 장기비육을 한 후 출하한다. 그리고 미국시장의 가공용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가가치가 낮은 늙은 암소를 출하한다.

일본과 미국이 호주 쇠고기 수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이 호주의 쇠고기 수출시장 규모로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나 수출 규모면에서 두 국가와는 차이가 크다. 그러나 호주는 한국으로 쇠고기 수출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한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지방교잡도가 높은 곡물 급여 쇠고기 생산을 증가시켜 나가고 있으며, 한국으로 수출하는 물량 중 곡물급여 쇠고기 비중도 13%에 불과하지만 지난 몇 년간 추이를 볼 때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호주는 쇠고기 산업에 대한 가격지거나 수출보조와 같은 지원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쇠고기산업 참가자들로부터 거두어 들인 거래세(transaction levies)를 통하여 마케팅과 소비촉진 등에 대해서는 호주축산공사(MLA)를 통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시장에서 호주산쇠고기의 이점 중 하나는 clean-green 이미지이다. 특히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이후 이러한 장점을 더욱 더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는 한국

시장에서 쇠고기를 판매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마케팅 전략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국내 고급육 시장에서 한우고기와 더불어 미국산 쇠고기와 호주산 쇠고기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어서 국내 고품질 한우고기의 생산과 유통의 선진화, 경쟁력 있는 브랜드육 육성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참 고 문 헌

- ABARE 2004, *Australian Beef Industry Production and Financial Performance*, Australian Beef 04.1
- ABARE 2004, *Australian Commodity Statistics 2004*

ABARE 2003, *Australian Beef Industry 2003*

Min-Kook Jeong, Terry Sheales, et al, *Korean and Australian Beef markets and prospects for trade*, ABARE eReport 04.22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3, *Agricultural Policies in OECD countries : Monitoring and evaluation*, Paris

Shiell, K., 2003, *Future Opportunities facing the livestock industry*, paper presented at Meat session, outlook 2003, Canberra 5 March

■ 원고 접수일 : 2005년 2월 25일
원고 심사일 : 2005년 3월 4일
심사 완료일 : 2005년 3월 28일

KREI